

■ 노성대 광주문화재단 대표 인터뷰

“재단의 주인은 시민 시민과 함께 문화나무 키우겠다”

지난 1월 출범한 광주문화재단은 광주 문화계 지형도를 새롭게 짜는 중대 역할을 맡고 있다. 재단의 수장을 맡은 노성대(70) 대표이사... (중략) ...

더 고생해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다. -3D영화제, 에디터러 축제, 아트페어 등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현재 장기 마스터 플랜이 없는 상황이라 '항해도' 없이 가는 게 가장 힘들다.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것을 구별해 일하고 있다. 무리하다 싶은 부분은 있지만 일 자체를 진행하면서 학습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단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 25명 전 직원이 밤 늦도록 일에 매달리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3D영화제는 산업쪽 개념이 강해 재단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시와 조율중이다. 아트페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월말까지 기획안이 나올 것이다. 재단 노하우 축적을 위해 재단 내 인력을 적극 투입할 것이다.

계 일을 추진한다면 '문화권력'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재단 장기 과제인 시립예술단 민영화는 둘러싸고 단원들이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지역 여건 등은 고려치 않고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지 하는 의견도 있는데. ▲시립예술단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현재는 재단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일사천리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시민사회단체, 재단, 단원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세세한 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모범사례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왜 시립예술단의 민영화 방안 이야기가 나오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자랄 수 있는 힘을 키웠으면 한다. -재단 대표이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노성대 대표이사는

- ▲1940년 광주 출생
- ▲광주서중·광주일고·고려대 졸업
- ▲1964년 MBC 입사, 1980년 해직
- ▲MBC사장, 한국방송위원회 위원장,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 역임

‘소망을 담고 나는 새, 솟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8일부터 ‘솟대’전

마을 어귀의 솟대에는 주민 모두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문승빈)은 오는 28일~2월27일까지 한국의 대표 이미지인 솟대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소망을 담고 나는 새, 솟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대한민국솟대작가 협의회가 전국을 돌며 카메라 영글어 담은 전국의 유명 솟대와 이를 작가들이 제작한 창작 솟대를 소개한다.

전시는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나눠 구성됐다. 제1부 ‘소망을 담은 마을지킴이, 전통솟대’에서는 호남, 영남, 중부·강원권 등 지역별 전통솟대를 되짚어보고, 제2부 ‘상징을 담은 예술품, 창작솟대’에서는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창작솟대를 감상할 수 있다. 또 제3부 ‘내 솟대 만들기’에서는 대한민국솟대작가협의회 주관으로 작은 솟대를 만들어 보는 체험행사가 곁들여진다. 문의 062-613-536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순 동북면 가수리 솟대’



‘브랜드공연’ 추진... 나뉘먹기식·꼬리표 달린 지원 없다 재단이 또 다른 문화권력 되지 않게 하는 것도 내 역할

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주 브랜드공연’ 사업도 추진할 것이다. -문화재단 역할 중 중요한 게 기금배분이다. 문진위 시절 가장 큰 불만사항이기도 했다. 기금 배분의 원칙은 무엇인가. ▲한정된 기금을 가지고 나누자니 어려움이 많지만 ‘나뉘먹기식’ 배분은 없을 것이다. 또 이미 누구에게 주도권 ‘꼬리표 달린’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인물과 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관심을 쏟겠다. 방송국에서 드라마가 기획되면 당연히 유명작가와 텔런트에게 몫이 돌아간다. 신진 작가와 신인 텔런트를 기용하는 건 그 사람 몫을 내놓고 하는 것이다.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처음에는 소리가 나오겠지만 공정한 장치를 해놓으면 이해할 거라 믿는다. 나부터 개인적인 주문을 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부탁에 대해서도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거나, 내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을 생각이다. 전제는 공정한 심사다. 심사위원들에게도 심층인터뷰를 하는 등

-타 지역 재단 관계자들은 시, 시의회, 지역 문화 권력 등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능한 인재들도 뽑혔지만, 이번 공채에서도 내정설 등이 떠돌았다.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다. ▲내가 와서 강조한 게 있다. 재단 일에 정지가 오면 시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어떤 행사든 누구를 맡아도 하는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부산영화제가 성공한 대목이다.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인,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직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1년안에 곳곳에서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한 흔적과 성과를 보게 될 거라 확신한다. -재단에 권한이 너무 집중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 재단 출대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점은 앞으로 겸손히 들어야할 대목이라고 본다. 재단 출사기 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지역 문화계와 격의 없이 소통하고 얘기를 나눌 것이다. 재단이 공개적이고 투명하

▲내 역할을 두가지로 정리했다. 일단 돈을 끌어오는 것이다. 사실, 종편 때문에 서울 기업체들의 후원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김동호 전위원장을 세계 영화계가 처음부터 알아줬잖나. 부산영화제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수시로 접촉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기업체 비서실에 수시로 앉아 있는 등 좋은 의미의 추태도 부리고 그래야 할 것 같다.(웃음). 또 하나는 소방수 역할이다. 사무처와 이사회, 문화예술계, 시와 시의회의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 말이다. 행여 소통이 안돼서 과열음이 생길 때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재단이 또 다른 문화권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내 역할이다. -사업진행을 위해서 기금확보가 중요한데.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서울·경기가 1000억 규모, 강원도도 188억원이다. 실제 일하는 데 중요한 것은 운영기금인데 올해 60억원(자체 사업 11억4000만원, 위탁 49억원) 수준이라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광주가 오히려 큰 편이다. 하지만 기금 확충은 아주 중요하기에 목표한 5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도록 시와 협의하겠다. 지역 기업들과 메세나 MOU를 체결하고, 개인후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미래 문화 애호가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시민문화향유 방안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사업을 곧 발표하겠지만 재단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지는 현상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일 거라고 확신한다. 교육의 경우 과거 교사 양성에 치우친 점이 없지 않다고 보고 향유자를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재단의 비전인 ‘문화나무’ 개념에는 시민이 참여해 직접 물을 주고 가꾸 광주를 풍성한 문화 숲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시민들도 한결씩씩 나와 참여하고 함께 문화나무를 키워주길 바란다.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문화현장에는 자주 가는 편이지. ▲스포츠클ubs를 참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공연장과 미술관에도 자주 가야겠다. 마침 오피스텔이 광주극장과 아주 가까워 ‘클라라’, ‘울지마 폰즈’를 봤다. 딱지초소년사회교육원 이사장도 맡고 있는데 청소년예술교육에 관심이 많다. ‘엘 시스템’도 한번 볼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28일 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구자범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협연자 없이 진행된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 비제가 알퐁스 도데의 희곡 ‘아틀르의 여인’을 읽고 만든 ‘아틀르의 여인 모음곡 2번’ 등이다.

피날레 곡은 슈만의 ‘교향곡 4번’이다. 한편 구 지휘자는 오는 2월 18일 광주에서 마지막 지휘봉을 잡는다. 연주 곡목은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진장애인장학회, 올 신학기 장학생 모집

장애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로암사람들 부설 무진장애인장학회(위원장 김황용)가 2011년도 신학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입생, 재학생 구분 없이 대학생 5명을 선발하며 각각 70만 원씩 지급

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 학생은 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무진장애인장학회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전달식은 내달 16일 오후 2시 실로암센터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062-672-778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그곳”

건강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병원!!!

최고의 병원!!
이 지면을 이용하실 병원 연락주세요!!

문의 전화
062)220-0528 / 010-4767-2676

비수술적 디스크 치료
서울휴신경외과

디스크 수술을 고민하신다면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보세요!!

서울휴신경외과 홈페이지 www.seoulhuu.co.kr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시술 사례 및 방법에 대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휴신경외과의원
예약 문의 인터넷: www.seoulhuu.co.kr
전화 예약: 062)374-5555

당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모발이식 · 지방흡입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가슴성형 모발이식 · 눈썹이식

삼선의원 상담문의 TEL 062) 653-7656

알레르기성

비염

코피 · 축농증

50년 전통!! 대를 이은 한의원!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곳...

북경당 한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대한생명 옆 한미쇼핑 맞은편
TEL : 062) 227-7575, 223-8300, 222-9487

‘사과같은 얼굴, 피부미인의 지름길’

강·한·남·자·피·부·미·인

전립선·탈모 피부레이저

강남 진료과목 **비노기과 의원**
전문의 원장 한승호

동구 대인동 30.3번지 2층 롯데백화점 주차장 주차 무료
예약및상담 062) 233-6060